

주 5일제 실시와 자원봉사

글_ 양용희_ 호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그동안 말 많던 주 5일 근무시대가 열렸다. 주 5일 근무시대는 근로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문화, 학교, 종교생활 등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주 5일제는 단지 근로자들이 하루 더 쉬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우리사회의 문화적인 수준과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의미에서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주 5일제 실시와 더불어 논의되는 주요 관심거리는 레크레이션, 스포츠, 여행, 문화생활 등과 같은 주로 여가 생활에 대한 것들이다. 여가 생활은 사람들의 활력과 생활수준을 높이는 데 분명히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사람들의 생활수준 뿐만 아니라 의식과 문화 수준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보다 높은 차원의 활력소 역할을 할 수 있는 요소가 필요하다. 그런 의

선진국 기업 임직원 대부분 지역사회 NGO나 사회복지단체의 이사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기업들도 임직원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제도적 차원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미에서 자원봉사활동은 가장 적합한 활력소 역할을 할 수 있는 문화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자원봉사활동이 강제적이고, 의무적인 활동이 아니라 자발적인 활동이며 우리 사회의 계층간의 갈등과 분리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통합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높은 차원의 활력주는 자원봉사

최근 많은 기업들이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실시하고 임직원들의 농촌일손 돕기, 결식 아동 식비 지원, 장애인 돕기 등의 자원봉사 활동을 지지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주 5일제는 바로 근로자들의 자원봉사활동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문제는 기업의 자원봉사활동이 하나의 형식적인 행사나 프로그램으로 그쳐서는 안된다는 사실이다. 우리사회의 자원봉사활동은 아직까지 일시적인 이벤트적인 성격을 많이 지니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자원봉사활동은 올림픽, 월드컵과 같은 국가적인 행사나 중고등학교의 의무적인 자원봉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자원봉사활동이 아직 우리 생활의 한 부분으로 정착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기업 임직원들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제도적

차원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직원들의 자원봉사활동을 근무시간의 일부로 인정하거나 직원들의 자원봉사활동에 matching fund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발대식과 같은 행사성 프로그램보다는 지역사회 중심의 실제적인 활동이 실시되고 있다. 그리고 대기업 임직원들의 경우 대부분 지역사회 NGO나 사회복지단체의 이사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어렵게 실시된 주 5일제가 여가 생활을 제공할뿐 아니라 자원봉사활동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으로 활력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듯 전향적인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에서는 제도적이고 구체적인 지원과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근로자들은 자원봉사활동이 봉사적 차원뿐 아니라 자신의 정신적 측면에서 삶의 활력적 요소가 되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분명히 주5일제는 우리사회의 많은 모습을 바꾸어 놓을 것이다. 그것이 소비와 낭비로 이어져 우리사회의 새로운 갈등과 부작용을 만들기 보다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의식수준의 향상과 함께 사회통합의 계기가 되도록 기업, 임직원 모두의 노력과 참여가 기대된다. KOVA